

전주시, 출생축하금 대폭 확대된다

출산 친화 분위기 장려 위해 첫째아 30만원·둘째아 50만원·셋째아 100만원으로 인상

전주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은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받는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출생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첫째아의 경우 10만 원인 출생축하금이 30만 원으로 3배 늘고, 둘째아 출생축하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인상된다.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출생축하금 10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120만 원의 자녀양육비가 총 2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자녀양육비는 타 지자체로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시는 우선 이달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생축하금을 다음 달 13일부터 확대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출생한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인상 분만큼 소급 지원된다.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출생축하금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19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출생축하금 인상을 위한 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쳤다.

시는 출생축하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전주동물원·자연생

태박물관·경기전 입장료 면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생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화해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입안해 나가는데 더욱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쿨스카프와 쿨토시, 선풍기 등을 지원했다.

취약계층에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전주시, 폐지 줍는 노인 등 354명에게 쿨스카프·쿨토시 등 전달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쿨스카프와 쿨토시, 선풍기 등을 지원했다.

시는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노인 등 취약계층 354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쿨스카프,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특히 이날 시는 선풍기가 고장이 난 서서학동 독거노인 태을 방문해 새 선풍기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선풍기, 여름의류, 여름이불, 보양식 등 7개 품목, 4458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취약계층 노인 4839명에게 지급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으로 힘든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일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요”

전주시, 전 직원 대상 탄소중립 실현 위해 실천 운동 추진

앞으로 전주시청에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들고 들어올 수 없다. 또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도 일회용 컵과 페트병이 사라지고 다회용 컵이 사용된다.

전주시는 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할 수 없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청사 내 일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청사 출입시 반입도 제한키로 했다. 로비에 위

치한 카페 이용 시에도 개인 텀블러를 사용토록 했다.

각종 회의와 행사도 마찬가지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물을 포함한 음료의 경우 참석자가 직접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 음료 제공이 필요하다면 담당부서가 대여해주는 다회용 컵을 활용키로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천연자원을 보존하고자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실과

회의, 행사 등의 실천 여부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텀블러 사용 등 적극 동참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월 1회용품 플라스틱 제로(ZERO) 자원순환 전주시를 선언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내 일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또 자동컵 살균기, 우산빛물레끼기 등을 설치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친환경 생활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위한 인지강화교실 운영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인지저하자와 경도인지장애 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두뇌가 말랑말랑’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인지강화교실은 사전에 배부한 인지강화 교재를 활용해 30분 내외의 통화로 인지학습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센터는 교육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노인들의 고독감과 우울감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하세요”

전주시, 8월 말까지 이용 활성화 위해 집중 홍보기간 운영

전주시는 8월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서명을 하고 발급받을 수 있

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만큼 위·변조나 대리발급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 수요기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발급률이 미비한 만큼 시는 전주시방범원과 등기소, 공인중개사협회, 금융기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기관과 유관단체 등을 방문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센터를 찾은 인감 신규 등록 대상자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 등 민원 처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해 2105명의 시민들이 발급하는 체험을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 등 사용의 불편함과 인감대장 관리의 행정적 비효율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다.

/김윤상기자

농생명 분야 대학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군산대 1명, 우석대 6명, 전북대 3명 등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약공학과와 생명화학과 전공 대학생에게 농생명 분야 실무 체험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학생들은 식물과 미생물 등 다양한 농생명소재를 활용한 기능성소재 발굴 및 평가 관련 이론교육과 실습에 참여했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통해 지역기업의 역량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군산대 1명, 우석대 6명, 전북대 3명 등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